



대안가정

통권43호 (계간) <http://www.daeanhome.org>

- 2 입양아동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배려
- 4 성탄행사
- 5 태광산업 송년파티 초청공연
- 6 '해맑은아이들의집' 이야기
- 8 '해맑은친구들의집' 이야기
- 10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 11 신고합니다! (노연희 보육사)
- 12 회비(후원) 내역
- 13 대안가정운동본부 재정 및 소식
- 14 해맑은아이들의집 재정 및 소식
- 15 해맑은친구들의집 재정 및 소식
- 16 후원안내



2013년 성탄파티를 마치고

가·정·이·필·요·한·아·이·들·의·보·금·자·리·대·안·가·정·운·동·본·부

발행인 이수형 / 발행처 (사)대안가정운동본부 / 발행일 2014. 01. 29

705-822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8길 102 / 전화 (053) 628-2592 / 전송 (053) 628-2595

입양아동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배려

■ 김명희 사무국장

1. 입양아동의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기아발견' 기록

전국이 개인정보유출로 난리가 나면서 내 명의의 계좌를 해지하고 아이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러 은행에 갔다. 미성년자인 아동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때는 기본증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주민센터에서 아이들 기본증명서를 발부받았다. 두 장 짜로 넘어가는 아들의 기본증명서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직원을 지켜보며 다시 가슴이 아렸다.

2005년 생후 9개월에 입양한 아들의 기본증명서에는 '출생' 이라는 단어 대신에 '법 제 52조에 의한 작성'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2008년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될 당시에는 아예 '기아발견' 이라는 문구가 적나라하게 명시되었다가 그나마 바뀐 것이 이렇다.

기본증명서를 들여다본 은행 직원 역시 심상찮게 서류를 들고 왔다 갔다 하더니만 딸의 성이 바뀐 적이 있다고 묻는다. 두 아이 다 '친양자입양' 을 해서 법적으로 다 정리가 되었다고 확인해주어야 했다.

당시에는 입양시 입양신고 대신 대다수의 입양가정이 (입양기관의 안내에 따라) 허위출생신고를 했고,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 집에서 낳은 것으로 출생신고 하여 완벽하게 신분세탁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허위출생신고 대신 합법적인 양자입양절차를 따라 입양신고를 한 덕에 아들의 기본증명서에 불리한 기록을 남기게 된 것이다. '법과 원칙' 에 따라 소신껏 행동한 부모로 인해 앞으로 우리 아들이 당할 불이익과 편견을 생각하면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을 지경이다.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인	은 (股)	년 월 일	-
일반등록사항			
구분	상세내용		
출생	[출생장소]	도 시 동 번지	
	[신고일]	년 월 일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인	은 (股)	2004년 월 일	04 -
일반등록사항			
구분	상세내용		
기아발견	[성맞본장설허가일]	2005년 04월 26일	
	[허가법원]	서울가정법원	
	[허가내용]	성을 김으로 본을 한양으로 창설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인	은 (股)	2004년 월 일	04 -
일반등록사항			
구분	상세내용		
법제52조에 의한 작성	[성맞본장설허가일]	2005년 04월 26일	
	[허가법원]	서울가정법원	
	[허가내용]	성을 김으로 본을 한양으로 창설	

2. 4대안가정

이제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위출생신고가 원천봉쇄 되면서 입양아동의 기본증명서에는 ‘법 제 52조에 의한 작성’ 즉, ‘기아발견’ 이 명시될 것이다. 이는 입양인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다. 우리는 이 불합리한 기록을 삭제하거나 친양자입양증명서로 옮길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2. 입양아동에 대한 교육권 보장

국내입양 부모의 연령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40대에 입양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즉 40대 이상의 입양부모들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는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의 나이차를 60세 미만으로 하고 있어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의 나이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문제는 입양아동이 대학에 진학할 때쯤이면 입양부모들이 이미 경제활동에서 은퇴를 했거나 은퇴에 직면하는 시점이 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입양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보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하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입양부모의 은퇴 시점과 맞물려 대학진학을 하게 되는 입양아동의 교육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의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은 만 13세까지 월 15만원의 양육비와 의료급여혜택뿐이다. (장애입양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별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교육비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극히 비현실적이며 생색내기용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국내입양이 저조한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 즉, 경제적인 이유임을 감안할 때 입양아동의 대학등록금 지원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내년이면 공개입양 1세대 입양아동들이 대학에 진학한다. 우리딸도 내년엔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평범한 가정이지만 우리 부부는 국민연금 외에 별도의 노후대책 없이 두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기에 빠듯하다. 우리가 둘째를 입양한 후 셋째를 입양하기를 포기한 것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둘째를 입양할 당시 이미 40대 후반인데다 우리 형편이 세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킬 여력이 못 된다는 걸 현실적으로 체감했기 때문이다.

많은 입양가정이 처음 한 아이를 입양한 후 이어 둘째, 셋째를 입양하고 있다. 이는 입양부모가 되고나서 입양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기 때문이다. 입양되지 못해 시설에 남아있는 다른 아이들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이미 입양을 경험한 성숙한 입양가정에 아동이 입양되는 것이 입양아동의 입장에서도 보다 안전한 대안임에 분명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3.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

정부의 국내입양활성화 정책을 보면 정말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를 원하는지 의문스럽다. 진정한 입양활성화정책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동이 입양되지 못하고 시설에서 성장하게 되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는 모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입양되지 못한 아동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대학등록금도 지원한다. 엄청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이 입양되어 새로운 가정에 편입되면 정부는 의료급여와 만13세까지 월 1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할 바를 다 한 듯하다.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실시한 것도 10년이 채 못 된다. 한 아이라도 더 입양되어 가정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경제논리에도 유리할 것이며 바람직할 것이다.

부디 입양아동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해주어 더 많은 아동이 입양되어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해맑은 아이들의 성탄파티

2013년 12월23일, 해맑은아이들은 남들보다 조금 빠른 성탄파티를 보냈습니다.

대구백화점에 있는 라피니타라는 식당에서 해맑은아이들의집과 해맑은친구들의집, 그리고 키다리 아저씨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성탄파티를 보냈지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함께 모여 캐롤도 부르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멋진 선물과 즐거운 성탄파티를 제공해주신 이수형, 박한배, 이병희, 이대준 키다리아저씨들과 외모만큼이나 마음씨 좋은 사모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맛있는 식사를 하며 함께 노래도 불러요



선물을 보고 즐거운 은경이



준희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편지와 함께 선물을 받는 준혁이



블록선물을 받는 준혁,현민



기본 좋게 선물을 뜯어봅니다.



막둥이들의 깜짝공연



답가를 불러주시는 박한배, 이수형 키다리아저씨



단체사진 찰칵~!!

태광 「따뜻한 빛 송년파티」와 「롯데월드」에 다녀왔어요.

태광산업에서 운영하는 「일주재단」은 전국에 있는 일부 그룹홈에 대학생 과외 선생님과 연기교육, 미술교육, 음악 교육을 지원해주고 아이들의 자립자금 마련을 위한 CDA계좌에 후원금을 적립해줍니다. 그 중 해맑은아이들의집과 해맑은친구들의집에는 대학생 과외선생님과 CDA계좌에 후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태광산업에서 서울에 있는 20여개의 그룹홈과 함께 송년파티를 하는 자리에 지방 대표로 초대를 받아 사운드오브뮤직의 곡 중 '도레미송', '도레미 앵콜', '안녕, 친구들'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무대에서 한 번의 리허설로 공연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큰엄마와 이모는 잔뜩 긴장했지만 아이들은 너무 당당하게 자신감을 내비쳐서 아이들이 잘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공연을 마치니 큰엄마와 이모의 염려는 기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꾸민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었던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초대받은 무대에서도 떨지 않고 당당하던 우리 아이들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아이들도 낯선 무대에서 박수와 갈채를 받으니 자신감이 한뼘 더 자란 것 같았습니다.



▲ 따뜻한 빛 송년파티 무대에 올랐어요.



▲ 안녕~ 안녕~ 잠자러 갈게요~



▲ 공연을 마치고 숙소에서 우리만의 뒷풀이

다음 날 우리 아이들의 서울 나들이를 알고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선물해주신 멋진 오빠 김단열님으로 인해 롯데월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놀이공원이 실내에 있다는 사실에 눈이 휘둥그레진 아이들의 모습에서 순수함이 더 돋보였습니다. 인파로 인해 줄서는 것도 즐거워 하던 아이들! 특히 은경이는 "이모! 꿈 같아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라는 말과 함께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마련해주신 김단열님 감사해요.^^



▲ 미이라가 된 다혜



▲ 즐거운 곳에 간식이 빠지면 안되지!



▲ 롯데월드를 나서며...찰칵!

「해맑은 아이들의 집」 이야기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며 우리 가족들의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끼리 무슨 인터뷰예요’라며 손사래를 치던 아이들이 막상 질문이 시작되자 수줍은 미소를 보이며 대답하는 모습이 새로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슴 한편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이제 나는 우리집 귀영둥이

2012년 10월 6명의 형과 2명의 이모가 있는 낯선 집에 왔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온종일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했다. 여기서서는 얼마간 지내는 것일까? 이 사람들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일까? 내가 뭐라고 하면 웃으며 자꾸 다른 말을 한다. 왜 내 말을 못 알아듣지? 짜증이 나서 계속 운다. 처음에는 업어주고, 안아주며 울지 말라더니 갑자기 모르는 체한다. 책상에 책도 꺼내 던지고, 옷장을 열어 옷도 마구 꺼내 던져본다. 헉! 싱크대 문에 매달렸더니 문이 떨어져 버렸다. 어떻게 하지? 당황하니 더 많이 울고 싶다.

“이모!”라고 부르면 이모가 웃으며 대답을 해준다. 이제 내 말이 들리나? 말이 통하니 울 일도 줄어들고, 이모가 자꾸 “현민이는 이모랑 함께 사는 거야!”라고 말하며 안아준다. 좋다!

♥ 현민이는 언어가 발달하면서 조금씩 울고 떼쓰는 습관을 줄어나갔답니다. 얼마나 상상력이 풍부한지 택시를 보면 “자동차가 모자를 썼어요.” 옷걸이 두 개를 양 손에 들면 “나비예요!”라고 말한답니다.



저는 준혁이 형아입니다.

“제일 좋은 건... 음... 장난감! 블록! 자동차! 이젠 1,2,3,4도 읽어요!”
제일 좋은 게 참 많다. 예전에는 말을 할 때 온 몸에 땀이 났는데 이젠 말하는 게 너무 쉽다. 영대병원 선생님도 이제 언어치료에 안와도 된다고 하셨다. 이모가 올해부터는 한글 이랑 숫자 공부를 할 거라고 한다. 숫자는 1,2,3,4 읽을 수 있는데... 나는 이제 여섯 살이다. 큰~ 형아다.

♥ 좋은 것이 참 많은 준혁이는 모두의 관심과 격려를 통해 언어치료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학습을 통해 준혁이의 언어를 개발시켜 보려고 합니다. 준혁이를 만나면 말도 많이 시켜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세요.



뽕뽕 자라는 중이랍니다~!

몸부림이 좀 심하다지만 벽면에 붙어 자니 벽에 ‘뽕’ 부딪쳐 아프다. 나도 중간에서 자고 싶다.

형들이 부럽다. 형들은 요리도 잘하고, 키도 크다. 난 너무 작다. 운동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 이제 형들이 시키면 한숨 쉬지 않고 말을 잘 들어야겠다. 얼마 전에 설거지를 배웠는데 이모, 형 모두 잘한다고 했다. 더 열심히 해서 요리도 해보고, 그래서 크면 멋진 요리사가 되고 싶다.



나는 갬틀맨

식구가 많아서 다 같이 모여 재미있는 별책을 받으며 노는 것이 정말 재밌고 행복하다. 특히 생일파티 할 때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선물도 받으니 더 좋다. 동생들과 함께 놀아줬을 때 동생들이 좋아하고, 가르쳐줬을 때 잘하면 내가 아주 멋진 형이 된 것 같다. 똑같이 형들이 우리와 놀아줄 때도 정말 좋지만 심하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프다!

요즘에 자꾸자꾸 놀고 싶다. 영어학원 숙제도 해야 되고, 5학년 올라가기 전에 4학년 과목 복습도 해야 하는데 자꾸자꾸 놀고 싶다. 참, 2월에 있는 한자시험도 준비해야 되는 데... 이걸 어찌지?!



의성어 대왕 신영찬입니다.

도운이가 몸부림도 심하지만 코도 골고 이도 갈아서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너무나 힘들어 그럴 때는 내 머릿속에 칙칙폭폭 기차가 지나가는 것만 같다. 빨리 늙을 것 같다.

방학이라 아무데도 가지 않아 이모를 도와드린다. 이모를 도와 파를 다듬고, 감자도 썰어보고... 그렇게 이모를 따라가다 보면 맛있는 음식이 완성된다. 아빠처럼 멋진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아빠가 보고 싶다. 아빠와 장난칠 때 세상에서 제일 재밌고 신난다. 빨리 아빠와 살고 싶다.



8등신 모델입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동생이 생겼다. 동생들이 모르는 것을 질문할 때 뿌듯하고 좋으면서도 제대로 가르쳐주는 게 맞는지 걱정되고 부담되기도 한다.

예전보다 친구도 많이 생겼다. 친구가 많이 생겨 좋지만 친하지 않은 친구가 친한 척 해서 약간 불편하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얘기를 하며 보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진다. 3~4년 후면 독립을 한다. 짧을 수도 길 수도 있는 시간을 지금처럼 싸우지 않고 친하게 화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집 힘센 맨~~~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교기숙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학교에 가보니 이미 선행을 마친 친구들이 많았다. 혼자 너무 뒤떨어지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차리고 매진해야한다. 앞으로 주말에만 집에 오게 되어 함께 할 시간이 많이 없어 아쉽다. 그동안 우리 가족과 나는 추억을 가슴에 담고 그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보답하기위해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해맑은 친구들의 집」 이야기

*** 단비의 13번째 생일 파티 ***

11월은 저희 집에 생일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6학년 정단비의 생일입니다. 일 년 동안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기 생일만 기다렸을 아이에게 중학생 때 사용 할 가방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중학교 입학 후 사용하기로 해서 일단은 옷장 안에 잘 모셔두었습니다. 포장봉지 그대로... 아이가 자라며 개인 취향이 명확해져서 선물을 사기가 쉽지 않았는데 선물해준 가방이 맘에 든다고 하니 이모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단비아~~2014년에는 더욱 멋지고 믿음직스러운 중학생이 되길 바랄게~~파이팅!!

*** 혜윤이는 공부 중 ***

혜윤이를 초등학교 저학년 때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은데 아이가 벌써 중3이 되어 고입을 생각 할 시기가 왔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대학도 진지하게 생각해야하기에 이모는 벌써부터 걱정도 되지만 어느새 훌쩍 자라고 있는 혜윤이를 보면 대견하고 기특합니다.



중학교 입학 후 공부가 힘들어 이모들에게 걱정을 끼치기도 하였지만 2학년 말에는 누구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 공부하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노력상, 성적향상상을 받아왔습니다. 선물로 혜윤이에게 '이모 하루이용권' 을 주었습니다. 이모랑 단들이 식사도 하고 카페도 가고 쇼핑도 하는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늘 동생들에 비해 이모들의 관심을 덜 받는다고 툴툴대던 혜윤이에게 큰 즐거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혜윤아 올해는 더 열심히 하자~~ 우리 집의 마스크스 파이팅 !!

*** 혜원이의 다이어트 계획 ***

이모는 요즘 고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우리 집 먹보(^.^) 4학년 혜원이입니다. 이모들이 조금 방심했더니.. 살이 너무 췌습니다. 몸무게가 다해, 은경이는 비교도 안 되고, 키가 7~8cm 더 큰 6학년 언니 단비도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돌입시켰습니다. 식사와 간식을 조금 줄이고, 줄넘기 등 움직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든 맛있게 잘 먹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져서 조금 더 먹으라고 한 것이 화근이었나 봅니다. 이제부터 이모도 조금은 단호하게 혜원이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혜원아~~지금부터 운동하는 습관으로 키는 쑥! 몸은 건강하게! 우리 함께 노력하자!!

* 문화체험 뮤지컬 '빨래' 관람기 *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문화지원사업으로 뮤지컬 '빨래' 를 보고 왔습니다. 2시간이 넘는 공연에 의젓하게 자리를 지키며 관람하는 모습을 보니 이제 '제법 많이 자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상경한 소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이라 혜윤이는 "서울 살아가 그렇게 힘들어요?" 등 질문이 많았습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뮤지컬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 다혜의 12번째 생일 파티 *

11월의 두 번째 생일은 다혜의 생일이었습니다. 다혜는 남들 모르게 조금씩 자라고 있어서 이번 생일에는 옷을 선물했습니다. 도톰한 청바지와 다혜가 좋아하는 보라색 롱티!! 다혜는 선물을 11월 말에 받았는데 12월 초청공연 때 처음으로 입겠다고 고이 모셔두었다가 정말 12월 말에 입었습니다. 옷 사이즈를 조금 크게 산다고 샀는데도 바지는 기장이 거의 맞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적게 먹어 걱정이 많았는데 눈에 띄지 않게 조용조용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다혜야~~ 내년에는 더 크자!! 이모가 옷 많이 사줄게~~^^



* 초등 영어 캠프 체험기 *

초등학생 다혜, 은경, 혜원이가 3박4일간 학교지원 경북영어캠프에 다녀왔습니다. 5학년 다혜는 2년 연속 참여이고 나머지 4학년들은 처음 가는 곳이라 염려되는 마음에 이래저래 잔소리를 해서 보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현실로 나타났는지 캠프에서 은경이는 잠바가 찢어지고, 혜원이는 감기가 심해졌는지 아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혜는 투정 아닌 투정으로 매일 전화해 이모를 찾았습니다.

집으로 모두 무사 귀환 후 다혜는 이번에도 여전히 어려웠다면서 툭툭거렸고, 4학년 두 녀석들은 감기에 걸려 돌아왔지만 '선생님이 잘 생겼네, 음식이 대부분 양식이어서 우리 집 밥이 더 맛있네' 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시도 때도 없이 쏟아냅니다.

* 은경이의 심리상담 *

은경이는 8월부터 마음소리심리상담센터에서 놀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상담센터로 가는 시간을 좋아하고 즐거워하여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마음 치료를 위해 시작한 놀이 치료이지만 은경이의 생활 습관·규칙정하기, 규칙 지키기 등 사회성에 관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면에서 더딘 행동을 보이는 은경이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은경아! 조금은 느리게 가더라도.. 매 순간 집중하고 바르게 가려고 노력하자! 다시 되돌아가기 없기~~!!



기대 30%, 걱정 70%

■ 서동진

2개월 후면 정식 고등학생이 된다. “세월 참 빠르네!”라는 말이 새삼 이해된다. 시계바늘을 뒤로 돌리고 싶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키보드 자판을 두드리는 것보다 글자를 많이 적고, 마우스를 쥐기보다 연필을 쥐고 있어야 한다. 아직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자리 잡고 있지만 두 달 후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기쁨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으면 좋겠다.

고등학교를 정할 때 학교 분위기와 성적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보았다. 진로 선생님과 천사 같은 우리 담임선생님 그리고 이모의 상담과 도움으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대진고등학교를 선택했고 여러 과정 끝에 무사히 합격통지서를 받았다.

고등학생이 되면 꼭 이루고 싶은 게 두 가지 있다.

첫째, 막연하게 공부했던 지금까지와 다르게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 그 이상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건 우리 선생님과 소중한 친구들에게 보답하고 싶어서다. 선생님은 항상 밝게 대해주시고 진로코칭도 해주셨다. 가끔 쓴 소리도 하셨지만 돌아해보면 올바르게 크라고 하신 말씀이었다.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 진짜 진짜 고마운 친구들이 “너는 뭘 해도 잘할 거 같다”, “동진이 너는 나중에 꼭 잘될 거 같다”, “너는 뭘 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맙다.

둘째, 좋은 친구, 평생 갈 친구를 만들고 싶다. 친구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좋은 맞수다. 버팀목과 좋은 맞수가 많을수록 학교생활과 공부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공부도 잘하게 되면 2학년 때는 학급 반장도 해보고, 3학년 때는 전교회장도 해보고 싶다. 도전과 성취를 통해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나를 그려나가고 싶다.

훗날 고등학생 서동진을 기억할 때 ‘장난을 많이 치지만 제 할 것은 열심히 하는 아이’라고 기억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필을 짝 쥐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 김태호

2014년 2월 중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입학이 코앞에 두고 있다. 벌써 중학교 졸업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 중학교 생활은 끝나가지만 친구들과는 평생 함께 했으면 좋겠다. 같은 학교에 가는 친구들은 더욱더 친하게 지내고 같이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꾸준히 연락을 하고 지내고 싶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 정말 말씀도 많이 피우고 걱정도 많이 끼쳐드렸는데 늘 따뜻한 말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 우리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앞으로 다가올 고등학교 생활은 기대 반 설렘 반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마음이 복잡하다.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아무 대비도,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고등학교 진학 후 생활에 대한 걱정이 커져만 간다.

입학하기까지 두 달여 간의 시간이 남았다. 그 시간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부족한 과목 복습과 더불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선행,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체력관리에 신경을 써야한다..

열심히 준비하여 고등학교 생활에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신고합니다!"

■ 노연희 보육사

갑오년 새해부터 출산휴가를 가신 설운숙 선생님을 대신해 4개월간 '해맑은친구들의집' 에서 함께 지내게 된 노연희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맑은친구들의집과 인연이 되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가끔씩 의아해지곤 합니다. 그룹홈에서 잠을 청하다가 문득 '지금 이곳이 어디지? 나는 지금 어떻게, 이곳에 있는 거지...?' 그런 낮선 밤을 여럿 보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교대근무를 한다는 것...아직까지는 온통 낯 설음의 연속입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사회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내가 모르는 세상들이 참 넓고도 많구나' 라는 생각을 이곳의 경험을 통해 절실히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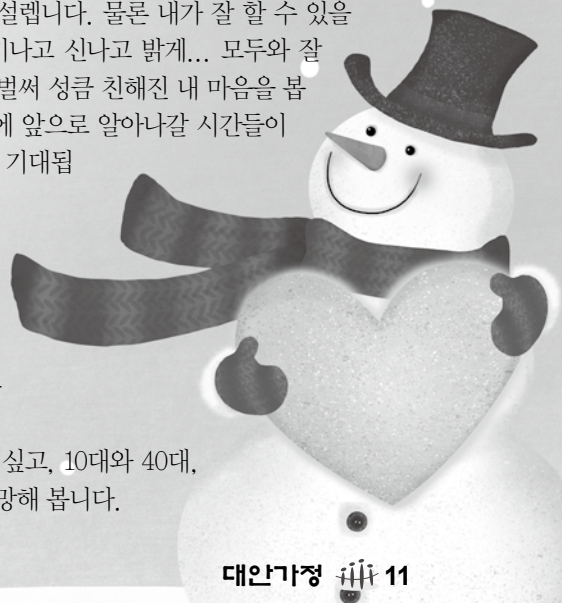
아마도 4개월간의 한정된 시간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낯설고...쉽지 않은 일을 직장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곳을 직장으로 선택하여 오랜 시간 함께 해 오신 선생님들이 참으로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2~30대 선생님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동동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직업이기 이전에 아이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특히 보통의 '쉼터' 들처럼 취사세탁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 게 아니라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그룹홈의 특성상 선생님 두 분이 번갈아가며 살림과 행정, 아이들 돌봄까지를 모두 해야 하는 상황인 걸 보고 참 놀라웠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잘 생활하고 있고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며 즐겁게, 그룹홈의 이름처럼 정말 '해맑은 집' 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저도 조금씩...자연스럽게...한 식구가 되어가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아주 우연하게 주어진 '해맑은친구들의집' 과의 인연,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저에게 어떤 경험으로, 어떤 시간으로 채워질지 많이 설렙니다. 물론 내가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의 긴장감은 늘 함께 하지만 해맑은친구들과 재미나고 신나고 밝게... 모두와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만 가진다면 금세 친해질 것 같습니다. 아니, 벌써 성큼 친해진 내 마음을 봅니다. 아직은 해맑은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기에 앞으로 알아나갈 시간들이 더 기대가 되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게 될 추억들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저에게 주어질 역할들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현재 해맑은친구들이 만나고 경험하는 그 찰나 찰나들이 그들 인생에서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시간들인지를 알기에 조금 더 진지하고 진솔하게 그리고 많~이 따뜻하고 즐겁게 우리 친구들과 주어진 시간들을 함께 하려고 마음먹어봅니다.

우리 친구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 많이 받고 싶고, 10대와 40대, 세대를 넘나드는 멋진 친구사이가 되길 감히 소망해 봅니다.



재정보고 및 소식

■ 회비 및 후원내역(2013년 1월~12월)

이사회회비

김규원	860,000
김시열	700,000
박한배	3,400,000
배성우	560,000
배순교	360,000
송광익	1,383,180
우병걸	160,000
은재식	240,000
이병희	3,210,000
이수형	7,180,000
이왕욱	650,000
이태원	900,000
정영숙	1,044,000
자학태	650,000

정회원 회비

권오길	100,000
권일섭	370,000
김명희	240,000
김봉섭	110,000
박범찬	450,000
이국진	520,000
이 담	600,000
이문기	600,000
이재용	240,000
이춘희	300,000
장춘호	360,000
정미옥	600,000
이대준	3,334,440

후원회원 회비

TCN대구방송	
2,300,000	
TCN대구케이블방송	
2,200,000	
강경희	120,000
강민경	10,000
강안숙	55,000
강한우	240,000
고 석	110,000
고현우	120,000
곽은섭	120,000
권무현	120,000
권영학	120,000
권영할	60,000
권용환	55,000
권응춘	100,000
권정숙	120,000
급자경	240,000
기산약품	120,000
김 경	90,000
김정현	110,000
김권우	110,000
김광미	50,000
김광연	120,000
김 구	120,000
김기택	350,000
김길중	110,000
김낙원	120,000
김낙욱	110,000
김대우	45,000
김덕겸	120,000
김탄호	50,000
김명희	90,000

김미경	320,000
김미경	90,000
김미라	120,000
김미자	220,000
김봉구	120,000
김상기	60,000
김상룡	60,000
김수득	120,000
김순자	120,000
김시영	60,000
김쌍호	2,800,000
김영남	60,000
김영철	120,000
김영철	200,000
김영학	30,000
김영호	120,000
김용학	120,000
김원규	360,000
김원희	120,000
김위홍	200,000
김윤정	2,000,000
김은미	120,000
김은형	120,000
김응숙	120,000
김이숙	360,000
김인규	70,000
김재경	20,000
김재수	120,000
김점순	120,000
김정락	120,000
김정민	10,000
김정훈	1,000,000
김중열	60,000
김지숙	50,000
김 진	120,000
김진석	360,000
김진수	120,000
김진희	100,000
김창규	220,000
김창원	80,000
김재출	120,000
김철영	90,000
김초자	300,000
김하수	50,000
김하림	120,000
김현애	60,000
김현옥	120,000
김현이	60,000
김현근	60,000
김효정	100,000
김희진	50,000
김희호	120,000
네홍공동체	200,000
나일용	50,000
남진호	90,000
노영희	240,000
대구은행	2,000,000
대백산교문화재단	2,400,000
대원포장기계	480,000
대화공업	300,000
도교건축사무소	480,000
도광식	120,000
동조철강	360,000

동진산업	240,000
돌꽃마을장애인그룹	50,000
류은경	30,000
류정열	220,000
메리츠화재	2,260,000
몸과문화	200,000
문옥희	120,000
문우경	120,000
박경혜	30,000
박광림	240,000
박규현	90,000
박기덕	140,000
박나연	120,000
박노상	90,000
박동근	90,000
박동준	120,000
박만규	120,000
박문옥	40,000
박미경	120,000
박미영	120,000
박병수	120,000
박선아	20,000
박성실	120,000
박승목	50,000
박순우	360,000
박승우	100,000
박신연	120,000
박연희	240,000
박옥란	120,000
박우연	40,000
박은진	240,000
박의환	360,000
박임순	120,000
박정식	600,000
박종호	120,000
박진국	50,000
박천호	120,000
박혜숙	360,000
반아월교회	500,000
배명섭	120,000
배성로	24,000,000
배성훈	240,000
배태순	240,000
배하림	90,000
배현경	10,000
배현석	110,000
백석환	240,000
백이웅	240,000
백인기	60,000
백종규	340,000
변기동	120,000
빈은선	500,000
성생학공업협동조합	120,000
서경희	240,000
서대현	240,000
서은희	60,000
서일교회	360,000
서진천	600,000
성진인다스트리	120,000
손병혁	60,000
손수민	100,000
손용배	90,000
손혁준	80,000
송경진	100,000
송계무	200,000

송중환	100,000
송창섭	120,000
송해익	500,000
송헌숙	100,000
신동업	120,000
신성종합건설	100,000
신화금기	240,000
심금석	80,000
안병근	10,000
안승규	240,000
안화열	120,000
양재우	360,000
영푸드	100,000
영진전문대	2,000,000
예병열	120,000
오세창	240,000
오찬현	60,000
오현주	120,000
와이드테크	600,000
우리복지시민연합	100,000
우리투자증권	200,000
우연조	120,000
월 성	660,000
위희택	120,000
유은주	100,000
유정옥	120,000
윤순영	120,000
윤여구	50,000
윤영철	90,000
윤정은	140,000
윤정희	120,000
은완수	120,000
이동률	100,000
이동욱	340,000
이동진	240,000
이동화계사무소	120,000
이미숙	120,000
이민수	1,000,000
이범섭	50,000
이병호	60,000
이보경	120,000
이성화	90,000
이상훈	120,000
이성희	120,000
이순임	120,000
이승미	110,000
이승찬	500,000
이승희	60,000
이연생	240,000
이영두	70,000
이영옥	220,000
이영찬	60,000
이영희	120,000
이옥화	120,000
이용수	200,000
이원준	30,000
이유미	60,000
이유영	10,000
이인수	50,000
이일영	150,000
이재수	420,000
이재욱	100,000
이주용	80,000
이진복	240,000
이진욱	20,000
이진희	90,000

이창훈	240,000
이철훈	120,000
이준미	80,000
이하예진	50,000
이한주	120,000
이혜영	120,000
이혜진	60,000
이효용	4,740,000
이희도	120,000
이희일	60,000
일주문화재단	500,000
임복순	120,000
임연수	360,000
임영진	120,000
임익성	60,000
임현락	90,000
장경은	110,000
장경철	120,000
장삼철	600,000
장재민	50,000
장영구	120,000
장윤미	120,000
장호덕	110,000
전경수	1,000,000
장영선	55,000
전영웅	110,000
전영평	120,000
전재현	240,000
전재호	120,000
전제혁	440,000
전준환	120,000
정경란	240,000
정경선	100,000
정남희	19,017
정수민	10,000
정연기	60,000
정영화	20,000
정용성	220,000
정재식	120,000
정재호	100,000
정한교	110,000
정한기	120,000
정현정	50,000
정혜경	120,000
정혜영	120,000
정화식	500,000
정희우	45,000
조경래	50,000
조규환	1,600,000
조영목	100,000
조재학	360,000
조재희	300,000
조정자	120,000
조행도	600,000
주은비	110,000
채승욱	120,000
채종해	120,000
천종근	50,000
천주석회	1,000,000
최경호	70,000
최영대	120,000
최영선	300,000
최원교	35,000
최원창	360,000
최정숙	120,000
커뮤니티와경계	50,000

태광공업사	2,710,000
태영경	100,000
평화기공	211,070
평화오일발공업	88,930
하다영	240,000
하정옥	240,000
하현열	240,000
한미숙	240,000
한은희	120,000
한창호	1,000,000
허만우	1,200,000
허영은	240,000
허영철	50,000
허유희	110,000
허해정	120,000
홍경자	120,000
홍종표	70,000
홍석진	120,000
홍후근	600,000
황원자	140,000
황윤선	110,000
효선건설	240,000

일반후원

이마트단체지원	38,154
신한어플포인트	956,873
해피빈	32,900

해맑은아이들의집 후원

■ 헌금 후원내역	
박진구	260,000
강은향	20,000
정용태	600,000
이윤영	120,000
박영하	40,000
천성동	40,000
신화회	100,000
신안회	100,000
구영익	250,000
대진공사	400,000
상수도사업부	250,000
남대구세무서	100,000

■ 물품 후원내역

이왕욱	쌀20kg 6포
떡국	kg 호떡믹스1box
식사, 간식, 차킨, 라면	1,400,000
대진공사	250,000
상수도사업부	400,000
남대구세무서	100,000
이재원	계란30구, 부송아, 떡, 수박
나영진	식사, 찜닭, 차킨, 분식, 과일, 과자
이정규(뜨래오래)	차킨18마리, 음료24병
김철출	아이스크림
신복성	수박
이수형	사과3box
평화홀딩스	배 2box, 사과2box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배1box, 사과1box
상수도사업본부	

피자5box, 음료4병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 전기압력밥솥	
MC하나새마을금고 : 쌀	
드림스타트 : 케익	
김영희 : 아동의류	
김효정 : 과자	

■ 상품권 후원내역

남대구세무서 재산세과	: 300,000원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 680,000원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20,000원

■ 해맑은친구들의집 후원

■ 헌금 후원내역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200,000
그룹홈협의회대구지사	100,000
그룹홈협의회(안변, 교북)	842,000
공동모금회(기능보강)	1,230,000
공동모금회(안변공영정후원금)	300,000
상수도사업본부	750,000
와이즈멘탈클럽	250,000
구교청	200,000
이윤영	120,000
임안섭	720,000

■ 물품 후원내역

공동모금회(아모리퍼시픽 아이티음)	: 생필품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 이불 7개	
그룹홈협의회 : 도서 20권, 인형 4개, 간식, 화장품	
대구시청 회계과 : 과자, 세계	
보훈청 : 온누리상품권 100,000	
상수도 사업본부 : 온누리상품권 200,000	
서일교회 : 쌀 20kg	
안산공원관리사무소 : 온누리상품권 300,000/빵	
장애인공공공단 대구지사 : 온누리상품권 380,000/두유	
한국구세군 예전 우시정 : 상품권 520,000	
김혜경 : 의류	
박지하 : 케익	
우병걸 : 장롱 12자	
이수형 : 식사 사과	
이왕욱 : 식사, 반찬, 과자, 아이스크림, 김치, 라면, 쌀	
정은기 : 의류	

■ 대안가정운동본부 재정보고

(2013년 1월~12월)

(단위 : 원)

세 입			세 출		
관 항	목	결산액	관 항	목	결산액
회비		96,400,740	사무비		70,969,390
회비		96,400,740	인건비		56,096,080
	이사회비	9,210,000	급여		37,173,000
	정회원회비	3,790,000	상여금		3,050,500
	후원회원회비	79,443,340	제수당		6,022,000
	특별회비	3,957,400	사회보험료		3,468,470
후원금		39,336,224	퇴직금		4,042,110
후원금		39,336,224	기타후생경비		2,340,000
	일반후원금	1,527,927	업무추진비		1,315,000
	그룹홈후원금	2,935,117	기관운영비		132,000
	후원행사	34,873,180	직책보조비		60,000
보조금		6,497,000	회의비		1,123,000
보조금		6,497,000	운영비		13,558,310
	기타보조금수입	6,497,000	여비		1,159,700
차입금		19,000,000	수용비 및 수수료		7,008,680
차입금		19,000,000	공공요금		829,020
	기타차입금	19,000,000	제세공과금		3,264,990
잡수입		1,433,679	차량비		1,283,920
잡수입		1,433,679	잡비		12,000
	불용품매각대	1,000,000	사업비		70,776,095
	기타예금이차수입	9,469	일반사업비		70,776,095
	기타잡수입	424,210	교육사업비		3,976,990
전입금		29,707,000	대안가정지원사업비		1,648,410
전입금		29,707,000	출판홍보사업비		1,695,190
	전입금	29,707,000	후원사업비		12,159,535
	전입금	29,707,000	회원사업비		370,000
			기타사업비		227,950
			그룹홈지원사업비		50,698,020
			재산조성비		2,623,970
			시설비		2,623,970
			자산취득비		2,623,970
			전출금		25,908,435
			전출금		25,908,435
			해맑은아이들의집		12,995,000
			해맑은친구들의집		12,913,435
			상환금		19,000,000
			상환금		19,000,000
			원금상환금		19,000,000
총 계		192,374,643	총 계		189,277,890
전년도 이월금		1,759,703	잔 액		4,856,456
합 계		194,134,346	합 계		194,134,346

■ 대안가정운동본부 소식

- 아동그룹홈대구경북지부 시설장회의 (10/25)
- 김명희사무국장, 고빛나, 설윤숙시설장
- 그룹홈협의회 (10/29)
- 김명희사무국장
- 아동그룹홈대구경북지부 모임 (11/18)
- 김명희사무국장
- 사회복지협의회 프로그램교육 (11/19)
- 민혜영상담원
- 아동그룹홈대구경북지부 시설장회의 (11/22)
- 김명희사무국장, 고빛나, 설윤숙시설장
- 사회복지협의회 사례관리교육 (11/27)
- 민혜영상담원
- 그룹홈협의회 이사회 (12/17)
- 김명희사무국장
- 아동급식위원회 (12/18)
- 김명희사무국장
- 성탄행사 (12/23)
- 해맑은아이들의집, 해맑은친구들의집
- 태광그룹 초청공연&롯데월드 (12/30~31)
- 김명희사무국장, 고빛나 시설장외 아이들7명

후 / 원 / 안 / 내

아동그룹홈 '해맑은아이들의집' 과 '해맑은친구들의집'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수 있습니다.

- 대구은행 : 068-05-005600-9
- 농 협 : 718-01-176941
- 국민은행 : 602-01-0688-119
- 신한은행 : 100-018-271549

예금주 (사)대안가정운동본부

아동그룹홈은 7명의 아이들과 2명의 선생님이 가족공동체가 되어 함께 생활하는 또 하나의 대안가정입니다.

「해맑은 아이들의 집」 재정보고

(2013년 1월~12월)

(단위 : 원)

세 입			세 출		
관 항	목	결산액	관 항	목	결산액
전입금		12,995,000	사무비		58,929,890
전입금		12,995,000	인건비		51,280,590
법인전입금		12,995,000	급여		37,628,000
후원금		4,268,000	상여		2,027,500
후원금		4,268,000	제수당		4,214,000
지정후원금		1,488,000	사회보험부담금		3,477,640
비지정후원금		2,780,000	퇴직연금		3,933,450
보조금		48,439,000	업무추진비		201,000
경상보조금		48,250,000	회의비		201,000
인건비		45,370,000	운영비		7,448,300
운영비		2,880,000	수용비 및 수수료		3,141,090
생계비		189,000	공공요금		2,510,260
준계부식비		91,000	제세공과금		1,054,950
월동김장비		98,000	차량비		742,000
입소자부담금		37,571,910	재산조성비		1,505,160
입소비용수입		37,571,910	시설비		1,505,160
입소비용수입		37,571,910	자산취득비		1,505,160
접수입		5,577	사업비		38,627,172
예금이자		5,577	운영비		23,091,300
			생계비		9,235,070
			의료비		307,470
			수용기관경비		3,505,320
			피복비		3,276,750
			특별급식비		5,909,280
			연료비		748,410
			여비		109,000
			교육비		10,333,470
			학용품비		482,950
			교복비		73,000
			수학여행비		35,000
			급식비		176,300
			학습지원비		8,220,920
			도서구입비		344,500
			교통비		294,800
			이미용비		201,000
			기타교육비		505,000
			사업비		5,202,402
			가족친화		1,769,702
			가족나들이		42,900
			문화체험		104,500
			상담 및 치료		25,300
			자립지원		3,260,000
총 계		103,279,487	총 계		99,062,222
전년도 이월금		1,260,765	잔 액		5,478,030
합 계		104,540,252	합 계		104,540,252

「해맑은 아이들의 집」 소식

- 자립프로그램-문경직업체험 (10/13)
- 류명희 보육사 결혼식 참여 (10/19)
- 아동인권보호 실사-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10/22)
- 독감예방접종-남구보건소 (10/25)
- 꼬꼬데이-포래오래 (11/1, 12/1)
- 지도점검-남구청 (11/15)

■ 아이들 소식

• 동진 '대건고등학교' 합격 (12.23)

새로운 환경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보고 싶어서 도전한 대건고에 합격한 동진이 기숙사 생활과 학교에서 짜여진 일정에 따라 지치지 않고, 충실하게 잘 생활하였으면 합니다.

• 준희 태광산업 송년의 밤 공연 다녀옴 (12.30)

태광산업 송년의 밤 초대공연에 준희가 참석하였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력이 없는 준희라 많이 염려했지만 대견하게 맡은 부분을 잘 하였습니다.

• 도윤 엄마만남 (10.19.~20)

도윤이가 엄마를 만나 안정적인 일상유지를 위해 바깥 활동보다는 집에서 공부를 하고, 음식만들기를 하며 알차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 준혁 엄마만남 (10.18.~23/ 11.13~18)

엄마의 휴가를 이용해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엄마와 헤어지면서 울던 안된다고 하는 모습에 대견함과 애잔함이 묻어납니다.

• 준혁 언어치료 종료 (10.8)

준혁이의 검사 결과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언어수준이 향상되어 언어치료를 잠정적으로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학습을 할 때에도 어려움이 없게 되어 앞으로도 언어치료를 하지 않게 되었으면 합니다.

■ 「해맑은 친구들의 집」 재정보고

(2013년 1월~12월)

(단위 : 원)

세 입			세 출		
관 항	목	결산액	관 항	목	결산액
전입금		12,913,435	사무비		60,746,580
전입금		12,913,435	인건비		52,259,270
법인전입금		12,913,435	급여		35,500,000
후원금		4,712,000	상여		2,102,500
후원금		4,712,000	일용잡금		50,000
지정후원금		3,822,000	제수당		7,224,000
비지정후원금		890,000	퇴직금 및 퇴직연금		3,735,530
보조금		48,385,000	사회보험부담금		3,627,240
보조금		48,385,000	기타후생경비		20,000
인건비		45,370,000	업무추진비		52,400
운영비		3,015,000	회의비		52,400
입소자부담금수입		23,031,750	운영비		8,434,910
입소비용수입		23,031,750	여비		201,200
입소비용수입		23,031,750	수용비		4,226,650
접수입		45,544	공공요금		3,086,700
접수입		45,544	제세공과금		920,360
예금이자		5,544	재산조성비		1,850,580
접수입		40,000	시설비		1,850,580
			시설비		154,000
			자산취득비		1,696,580
			사업비		24,862,731
			운영비		15,569,950
			생계비		6,816,330
			수용기관경비		2,302,820
			피복비		1,200,730
			의료비		268,900
			특별급식비		3,956,870
			연료비		1,024,300
			교육비		4,967,230
			학용품비		267,970
			도서구입비		567,900
			교통비		799,500
			학습지원비		2,385,500
			교복비		372,000
			이미용비		173,000
			기타교육비		401,360
			사업비		4,325,551
			가족친화		969,770
			상담 및 치료		20,800
			자립지원		3,334,981
총 계		89,087,729	총 계		87,459,891
전년도 이월금		1,846,770	잔 액		3,474,608
합 계		90,934,499	합 계		90,934,499

■ 「해맑은 친구들의 집」 소식

- 그룹홈협의회 대구경북지부 보육사회의 (11.6/11.29)
 - 양지은 보육사, 류명희 보육사
- 그룹홈협의회 대구경북지부 송년회 (12.13)
- 사회복지시설 돌봄시설 특별 조사 (10.25)
-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지도점검 (11.15)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11.14)
 - 설윤숙 시설장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12.12)
 - 양지은 보육사
- 설윤숙 시설장 출산휴가로 대체인력 채용

설윤숙 시설장님이 출산으로 인하여 2014년 1월부터 출산 휴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 선생님을 채용하였습니다. 12월에 1차 면접, 2차 채용심사까지 끝내고 1월 1일부터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밝으시고 에너지가 넘치시며 아이의 작은 행동에도 칭찬으로 답해 주셔서 아이들의 마음까지 읽어 주시는 분입니다.

■ 아이들 소식

- **혜원 친부 만남 (2013. 11. 24. / 12. 22)**

혜원이는 매달 넷째 주 친부와 정기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혜원의 부친과 학교생활, 그룹홈 생활 등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혜원이는 아빠와 영화도 보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 필요한 물건도 구입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 **혜원 대안가정 만남 (2014. 1. 1. ~ 2)**

혜원이가 오랜만에 대안가정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방학이고 새해가 되어 1박2일동안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대안가정 엄마, 아빠 그리고 가을이와의 만남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 **은경 친부 만남 및 친척 만남 (2013.10. 13 / 11.10 / 2014. 1. 1 ~ 5)**

은경이는 매달 둘째 주 친부와 정기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은경이는 아빠랑 이야기하고, 함께하는 시간으로 많은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영주에 있는 고모 집에 오랜만에 놀러갔습니다. 늘 이야기하던 쌍둥이 언니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고모, 언니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